



미국사회에서 임금, 교육수준 등에서의 남녀간 격차가 80년대 후반 들어 급격히 줄어들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유에스 앤드 월드리포트〉 4월 호는 '여성의 소득이 증가하고 있다'는 제목의 '경제전망'을 싣고 80년대 후반 들어 2차대전 이후 처음으로 남녀 수입 격차가 줄어들고 90년대에는 더욱 줄어

분석해내기도 했다. 그런데 세번째의 시기가 바로 지금이라는 것. 성차가 좁혀지는 이유는 무엇일까? 여성들이 철저한 직업의식을 갖고 아이 기르는 일 등 가정일에 시간을 덜 쓰게 된 변화를 첫째로 꼽는다.

특히 여성 교육수준 향상도 주요한 요인으로 지적되고 있다. 미국사회에서 학사학위 소지자의 수는 80년대 후반부터 여성이 남성을 훨씬 앞지르고 있다.

남녀 직업성격에 있어서의 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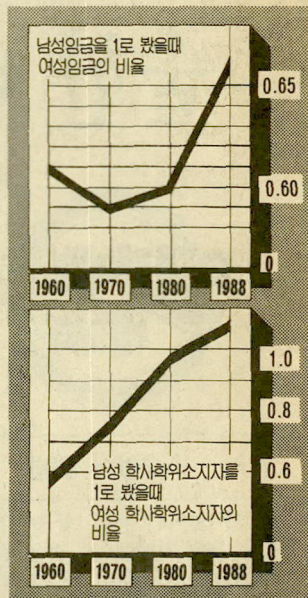
미국 임금·교육수준 남녀차 급격히 줄어 평생 직장 원하는 여성 폭발적으로 증가

들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러한 진전은 2차대전 이전에도 두번 선례가 있었다. 〈성차의 이해: 미국여성의 경제사〉를 쓴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골딘은 여성이 임금노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1790년부터 추적, 산업혁명기인 1820~1850년, 화이트칼라 사무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1890~1930년의 두 시기가 남녀 성차가 좁아진 역사적인 시기였음을

차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직업여성의 30%가 남성과 같이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종사한다. 사무직·서비스직 종사 여성의 수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현재 공인회계사의 절반, 의사의 6분의 1이 여자다. 이제 1백년 전의 교육받지 못하고 어리고 임시고용적인 성격을 가진 여성노동자는 사라지고, 교육받고 아이를 기르면서 짧은 노동시간으로 평생을

〈미국의 임금과 학력 남녀격차〉



일하려는 여성노동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월드리포트〉는 "이제 기업과 노동시장도 이 대규모 여성노동자집단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

평생을 직장원하는 여성 폭발적으로 증가

이러한 진전은 2차대전 이전에도 두번 선례가 있었다. 〈성차의 이해: 미국여성의 경제사〉를 쓴 경제학자 클라우디아 골딘은 여성이 임금노동에 참여하기 시작한 1790년부터 추적, 산업혁명기인 1820~1850년, 화이트칼라 사무직이 폭발적으로 증가한 1890~1930년의 두 시기가 남녀 성차가 좁아진 역사적인 시기였음을 차도 큰 변화를 보이고 있다. 직업여성의 30%가 남성과 같이 전문직이나 관리직에 종사한다. 사무직·서비스직 종사 여성의 수도 현저히 줄어들고 있다. 현재 공인회계사의 절반, 의사의 6분의 1이 여자다. 이제 1백년 전의 교육받지 못하고 어리고 임시고용적인 성격을 가진 여성노동자는 사라지고, 교육받고 아이를 기르면서 짧은 노동시간으로 평생을 일하려는 여성노동자들이 폭발적으로 늘어났다. 〈월드리포트〉는 "이제 기업과 노동시장도 이 대규모 여성노동자집단에 맞는 대안을 모색해야만 할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다.